

2019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소속고교		수험번호		성명	
------	--	------	--	----	--

◆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철도가 나타나면서 도시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만큼 시간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되었다. 마차나 배는 마주치면 서로 비켜 가면 된다. 하지만 기차는 다르다. 철로 위에서 기차끼리 마주치면 대형 사고가 된다. 그렇다고 철로를 한정 없이 새로 깔 수도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차끼리 마주치지 않으려면 여러 곳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 게다가 산업이 발전할수록 여러 도시는 같이 움직여야 한다. 예전에는 농사짓고 물건을 만드는 일이 대부분 한 동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철도가 놓인 다음에는 달랐다. 예컨대 아침에 다른 도시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날짜에 맞추어 조립하여 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 마을 식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썼다간 열차를 놓치지 일쑤다. 그러면 다른 곳까지 피해가 돌아간다.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여 시간을 단속해야 했다. 기차가 더 많이 놓이고 세상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규칙처럼 되어 갔다. ‘철도 시간’은 무지막지했다. 마차는 말이 지치는 만큼만 달린다. 말의 숨소리가 거칠면 말에게 휴식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기차는 말과 다르다. 기차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멈춤도 예외가 없어야 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 숲이건, 사막이건, 습지가건 상관이 없었다. 출발과 도착 시간만 중요할 뿐이다. 시간이 하나가 되자 기계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보다 식사 시간이기때 밥을 먹는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되었기에 공부한다. 쉬고 싶어서 쉬기보다는 휴식 시간이기때 책상에서 일어난다.

[나] 매미나 작은 비둘기가 높이 나는 봉을 비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도 낮은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에 이르고, 어떤 때는 거기에도 못 미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봉새는 구만 리나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 하는 걸까.”

근교의 들판으로 나가는 사람은 세 끼 밥만 있어도 돌아올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지만, 백 리나 되는 길을 갈 사람은 전날 밤에 충분히 식량을 마련하고, 천 리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삼 개월 전부터 식량을 모아서 준비한다. 그런데 매미나 비둘기같이 작은 것이 어찌 이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소소한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아침에 잠깐 사는 버섯인 ‘조균(朝菌)’은 하루를 다 알지 못하고, 한 계절만 사는 쓰르라미인 ‘해고(蟋蟀)’는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짧은 수명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冥靈)’이란 거북이 있는데, 이 거북은 오백 년을 봄으로, 오백 년을 가을로 하며 산다. 아주 먼 옛날 ‘대춘(大椿)’이라는 나무는 봄과 가을을 각각 팔천 년씩 하여 살았다. 그런데 ‘팽조(彭祖)’는 요즘에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명령이나 대춘에 견주어 보면 가련하지 않은가!

[다] 우리 삶은 일정한 때와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삶은 때와 곳, 즉 현재라는 지평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삶의 현재는 ‘지금 여기’란 시간과 공간, 그 씨줄과 날줄이 만나는 터전이다. 삶의 철학은 우리 삶이 시간과 공간, 즉 ‘현재’란 해석학적 지평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이야기를 지닌다. 이야기는 삶의 과정이며, 삶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너와 나의 이야기는 삶의 결과이고 과정이며, 삶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그렇기에 삶의 이야기는 나의 존재이고 역사이며, 나 자신이다. 그 이야기에는 사랑하는 이와 관계가, 나의 기쁨과 희망이, 지난날의 고뇌와 미래의 꿈이, 나의 잘못과 부끄러움이, 실패와 극복의 아픔이 담겨 있다. 거기에는 너와의 관계가, 너에 대한 아픔과 잘못이, 부끄러웠던 옛날의 기억이 있다. 거기에는 가슴 설렘과 회한이, 어쩔 수 없었던 좌절과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려는 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 삶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가운데 생겨나는 이야기 그 자체이다.

현재는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는 터전이며, 미래의 결단이 현재화하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삶은 언제나 현재의 것이며, 그 현재는 시간적인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의 결단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만나는 터전이다. 삶이란 내 존재 전부가 담긴 이야기이다. 그 안에는 과거와 미래란 시간이, 너와 나의 만남, 성취와 좌절, 용서와 이해, 존재의 수용과 미래를 향한 초월이 함께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희열로 가득 찬 것이기도 하지만, 때론 죽음보다 더 강하기도 하다. 인간은 실로 이 모든 이야기 안에 자리한다. 우리는 실타래처럼 얽힌 과거와 꿈꾸는 초월, 그것이 함께 자리하는 해석학적 현재에 살고 있다. 삶이란 결국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의 현재인 것이다.

[라] Recognizing that it is high time we restore healthy social networks to our daily lives, Dr. Edgar Cahn, a former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dvanced a new system of market, called time banking. In time banking, the market values the real work of society, such as caring, loving, and being a citizen, a neighbor, and a human being. Time banking operates on a new community currency based on time, the Time Dollar, that once in circulation feels every bit as real, and as useful, as the cash in our pockets.

Time banking is built around the basic concept of earning and spending hours. Everyone's skills are worth one Time Dollar per hour. When you join a time bank, the time bank measures and values your hours based on the kind of help and skills you can offer. You can earn and deposit your Time Dollars in the time bank by giving practical help and support to others. Later on, when you need a helping hand, you can spend or withdraw your time credits on any kind of skills and support other participants can offer. A time bank is open to people of all ages, abilities, and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It benefits from the great diversity in its participants and their skills. For example, an elderly man who needs his house painted used to train police dogs. He earned a few Time Dollars with his dog training skills, and he is now spending them on the house job with the help of a professional house painter. Each Time Dollar can mean different values and services to different people. The secret of successful time banking is sharing the load by doing the things you enjoy doing and letting others do what they enjoy doing for you.

[마] 모든 신체 기관이 주기적인 운동을 하니 그 자체로 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체 시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체의 일주기 운동을 관장하는 생체 시계를 ‘중양 통제 시계’라고도 한다. 따라서 모든 신체 기관은 이 주인 시계에 맞춰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수적인 시계인 셈이다. 이 주인 시계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 기관의 각 영역을 하나씩 망가뜨려 보면서, 그래도 일주기 운동이 살아남아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찾은 곳이 바로 뇌에 있는 시교차상 핵이다. 빛이 눈으로 들어온 뒤 가게 되는 뇌의 좌우 신경이 교차하는 곳, 즉 시교차 위에 있어 시교차상 핵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생체 시계가 빛의 영향을 받다 보니 오랫동안 가장 그럴듯한 생체 시계 후보로 간주됐다. 시교차상 핵은 2만여 개의 신경 세포로 구성돼 있다. 살아 있는 쥐의 시교차상 핵에 전극을 꽂아 신경 세포들의 전기 신호를 측정해 보면, 24시간을 주기로 사인파*에 아주 가까운 파형을 그린다. 그리고 바로 이곳을 망가뜨리면 체내 대부분의 기관이 보이던 24시간 주기적 양상이 사라진다. 시교차상 핵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중양 통제 시계인 것이다.

이러한 시교차상 핵의 신경 세포들은 이들이 체내에서 활동할 때에는 정확히 24시간에 맞춰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 리듬을 살펴보면 오전 7시가 지나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멈추고 8시 30분 무렵에 장운동이 활발해진다. 오후 3시 30분쯤은 반응 속도가 하루 중 가장 활발하여 업무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다. 오후 5시 무렵은 근육의 힘과 유연성이 최고일 때이며 심장과 폐의 기능도 가장 활발하다. 그리고 밤 9시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여 새벽 2시경에는 최고치에 달한다. 그러므로 새벽 2시 전후에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 이 리듬이 망가지면 판단도 흐려지고 업무의 실수도 찾아진다.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판단 실수의 많은 경우가 의사와 간호사의 일주기 리듬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해가 있는 동안은 깨어 있고, 해가 진 다음에는 잠을 자도록 진화해 왔다. 생체 시계를 정확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 사인파(sine波): 파형을 삼각함수의 사인 곡선으로 표시하는 파동. 주파수나 소리를 표시하는 데 쓰이는 기본 파형이다.

** 멜라토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밤과 낮의 길이나 일조 시간의 변화 등을 감지하여 생체 리듬에 관여한다.

[마] 우리는 일벌과 일개미가 대단히 부지런한 동물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이 과즙을 모으거나 집을 청소하는 시간은 낮 시간의 20%에 불과하다. 그 외의 시간에는 할 일을 적어 둔 쪽지를 잃어버리고도 걱정조차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처럼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한다. 개미나 벌이 근면한 동물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은 벌집이나 개미집 전체가 보여 주는 번잡함 때문인 듯하다. 벌집이나 개미집은 겉보기에는 쉼 새 없이 움직이는 작은 우주 같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각각의 개미들과 벌들이 매 순간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체 하나하나에 일일이 꼬리표를 붙이고 관찰한 결과, 벌들과 개미들의 휴식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문화권에 따라 노동 시간도 상당히 다르다. 프랑스 인은 일 년에 평균 1,646시간을 노동하지만, 일본인은 2,088시간을 노동한다.

인간이 부지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달리 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졸리면 커피를 마시고, 따뜻해서 잠이 쏟아질 때는 난방기를 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생존에 쓰고도 남을 양의 자원을 모으지만, 다람쥐는 한 해 겨울을 무사히 나는 데 필요한 자원만 모은다. 동물 중에서 학비나 실직수당, 구식 레코드를 콤팩트디스크로 바꾸는 데 필요한 돈을 걱정하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의 그러한 몰욕(物慾)은 대개 문화적인 훈련에서 비롯된 것 같다.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자원을 획득하고, 그렇게 획득한 자원을 대체로 그날그날 소비하는 동물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한다. 사실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싶어 하는 선천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게으름을 최악의 하나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사] 어느 때 어느 사회에서고 일은 언제나 찬양되고 격려되어 왔다. 사실 일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해야 한다. 우리는 일이라는 창조적 작업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 철학자로 알려진 아렌트는 우리가 보통 '일'이라 부르는 활동을 '작업(作業, work)'과 '고역(苦役, labor)'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노력, 따파고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며,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전자가 자의적인 활동인 데 반해서 후자는 타의에 의해 강요된 활동이다. 전자의 활동을 창조적이라 한다면 후자의 활동은 기계적이다. 창조적 활동의 목적이 작품 창작에 있다면, 후자의 활동 목적은 상품 생산에만 있다.

땀을 흘리고 적지 않은 고통을 치러야만 하는 정말 일로서의 일, 즉 작업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언제나 엄숙하고 거룩하고 귀해 보인다. 땀을 흘리며 대리석을 깎는 조각가에게서,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창작에 열중하는 작가에게서, 무더운 공장에서 쇠를 깎는 선반공에게서, 땀방울에 지게질을 하고 밭을 가는 농부에게서 다 똑같이 흐뭇함과 거룩함을 발견하며 그래서 머리가 숙여진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작업'으로서의 일은 아니다. 어떤 일은 부정적인 뜻으로서의 '고역'이기도 하다. 회초리를 맞으며 노예선을 짓는 노예들의 피땀 묻은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 커녕 그들을 짓밟은 '고역'이다. 위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디기 어려운 조건하에 타당치 않게 박한 보수를 받고 무리한 노동을 팔아야만 하는 일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고역이다.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의 구별은 단순히 지적 노고와 육체적 노고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한 학자가 하는 지적인 일도 경우에 따라 고역의 가장 나쁜 예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도 경우에 따라 적업*의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을 구별하는 근본적 기준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시키는 것이냐에 있다.

* 적업(適業): 능력이나 적성에 알맞은 직업.

1 제시문 [가]와 [나]를 대비하여 요약하고, 그 둘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40점]

2 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인간의 삶과 시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시오. [30점]

3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제시문 [마]와 제시문 [사]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30점]